



글로벌 제조업 경기 동향과 시사점

김세중 선임연구원

- 최근 발표된 선진국의 6월 제조업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 제조업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신흥국 제조업 경기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로지역 6월 제조업 지수는 1년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에서의 제조업지수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유로지역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 미국 6월 제조업지수 또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일본의 단칸지수도 아베노믹스 효과로 인해 플러스로 전환됨.
 - 그러나 중국 제조업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선진국의 제조업 경기 흐름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됨.

- 유로지역 6월 PMI 제조업 지수는 48.8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영국 PMI 제조업 지수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유럽지역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됨.
 - 유로지역 6월 PMI 제조업 지수는 48.8로 경기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월 48.3에 비해 0.5 포인트 상승하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영국 PMI 제조업지수도 전월에 비해 1.0 포인트 상승한 52.5를 기록함.
 - 유로지역 중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PMI 제조업지수는 모두 2011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낸 반면 유로지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경우에는 전월대비 0.8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유로존 PMI 지수를 발표하는 Markit의 Chris Williamson은 유로지역 PMI 제조업지수의 상승으로 2013년 3/4분기에는 제조업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6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대비 1.9 포인트 상승한 50.9를 나타내면서 제조업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6월 단칸 지수도 2년여 만에 플러스로 반전함.

- 6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5월 49.0에 비해 1.9 포인트 상승한 50.9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을 상회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신규주문지수가 3.1 포인트 상승한 51.9를 기록하였고 생산지수가 4.8 포인트 상승한 53.4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지수는 48.7로 200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일본 제조업체들의 경기 신뢰도를 나타내는 단칸지수는 6월 플러스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2011년 9월 이후 처음이며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경기를 낙관하는 일본 기업들이 증가했기 때문임.

■ 반면 6월 중국 제조업 지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됨.

- 6월 중국 PMI 제조업지수는 5월 50.8에 비해 0.7 포인트 하락한 50.1을 기록하면서 2012년 9월 50을 하회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HSBC가 발표하는 중국 PMI 제조업지수도 9개월 내 최저치인 48.2를 기록함.
-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PMI 제조업지수의 하락이 중국의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무라 증권은 2013년 3/4분기와 4/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7%를 하회할 가능성이 30%에 달한다고 밝힘.
- HSBC의 Hongbin Qu는 최근 은행 간 신용경색 문제가 중소기업의 차입확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 경기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선진국과 신흥국 제조업 경기의 디커플링 현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7월 1일 HSBC가 발표한 우리나라 6월 PMI 제조업지수도 49.4로 201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리서치회사인 Capital Economics는 최근 신흥국 경기 회복속도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수요의 가시적인 회복이 있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함.
-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 등에 따라 향후 경기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임.

(Financial Times 등)